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⑩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5) - 감원과 유나

### 빈틈없는 재정과 엄격한 기강의 총 책임

감원은 지사(知事) 서열 가운데 1위이다. 주지를 보좌해 총림의 재정과 운영, 서무(庶務), 행정 등을 총괄·감독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총무와 재무가 합해진 소임이다.

감원은 원주(院主)·원재(院宰)라고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원주와는 직위가 전혀 다르다. 안 살림을 맡고 있는 오늘날 원주(院主)와 달리 당·송 시대 원주의 권한과 직위는 서무·행정 면에서 주지 다음이었다.

얼마 전 월정사 주지스님 등과 함께 일본 후쿠이(福井)에 있는 조동종 본산인 영평사를 탐방했다. 이때 외빈을 맞이하는 대표 스님의 직함이 감원이었다. 안내자는 주지와 같은 위치라고 했는데, 영평사에서는 관수(貫首·방장격)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 감원, 주지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감원의 임무에 대해 《선원정규》에는 “감원이라는 직책은 선원 내 모든 일을 총괄한다. 즉 관청에 나아가고 관리나 시주들이 찾아오면 영접하며, 길흉의 경조사, 재정 출입, 회계, 금전과 곡식, 고원(주방) 용품 등 수입 지출을 담당한다(監院一職, 總領院門諸事, 如官中應副(…)相看施主, 吉凶慶弔, 借貸往還, 院門歲計, 錢穀有無, 支出收入)”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지의 사함으로써 “감원 소임의 핵심은 어진 이와 대중을 받들며, 상하를 화목하게 하고 대중이 늘 환희심을 갖게 해야 한다. 권세를 빙자해 대중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환기시키고 있다. 또 주지를 보필할 때에는 “고사(庫司·창고)에 재용(財用)이 부족하면 스스로 힘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되, 주지에게 알리지 마음을 쓰게 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 실정을 대중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주지는 참선지도와 공안(화두) 제시, 범거량(선문답), 설법 등 교육을 통해 수행승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중점을 뒀다. 총림의 살림을 걱정하게 되면 대강(大綱)이 흔들리고, 결국 인천(人天)의 안목이 될 선승을 길러 내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또한 총림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감원의 책무가 얼마나 막대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총림(선종사원)의 소임 가운데 총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임으로는 주지·수좌·감원·유나 등 4개의 직책이 있다. 주지는 총림을 대표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나머지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수좌는 좌선 등 교육을 총괄하고, 유나는 기강과 규율을 담당한다. 또한 감원은 서무(사무)와 재정 일체를 감독한다. 수좌와 감원은 총림의 여러 소임 가운데서도 주지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이다.

감원의 명칭과 소임은 총림이 세워지던 백장 선사 시대부터 송대 중기(북송)까지 이어졌다. 남송 때 이르러 감원의 역할은 변화를 맞게 된다.

남송 때 국가사원 성격인 5산10찰 제도가 생기고, 총림의 규모가 커지면서 감원 혼자서 총림의 재정과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감원의 역할은 도사(都寺)·감사(監寺)·부사(副寺)로 분할된다.

송대 중기(북송)에 편찬된(1103년) 종색의 《선원정규》에는 지사직(知事職)으로 감원·유나(기강 담당)·전좌(典座, 창고, 주방 담당)·직세(直歲, 건물 보수 관리)의 4지사(知事)가 나온다. 이보다 약 150년 후인 도원(道元, 1200-1253)의 《영평정규》에는 도사(都寺)·감사(監寺)·부사(副寺)·유나(維那)·전좌(典座)·직세(直歲)의 6지사가 언급된다. 또한 1338년에 편찬된 《적수백장정규》 동서지사장 도감사(都監寺) 항목에서도 《영평정규》와 마찬가지로 6지사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6지사는 1200년대 초(남송 때)에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선종사원의 직제에는 아직 감원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도사(都寺)·감사(監寺)·부사(副寺)는 모두 감원에서 갈라진 소임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직무는 도사(都寺)이다.

도사(都寺)는 감원의 여러 업무 가운데서 주로 서무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 우리나라 사찰의 총무와 같다고 보면 된다. 감사(監寺)는 감원의 직무 가운데 감독 기능만 독립시킨 것으로서 각 소임의 업무를 감독하는 직책이다. 근대에 감무(監務)라는 소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이다. 부사(副寺)는 감원의 직무 가운데서 금전 출납, 쌀, 천, 곡식 관리 등을 맡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부사(副司)·고두(庫頭 副寺의 고칭)·괘두(櫃頭)·재백(財帛)·부원(富院) 등으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재무와 같다. 그리고 도감(都監)이라는 소임은 도감사의 준말로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아직 쓰이고 있다.

#### 기강과 사법담당 유나(維那)

수좌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6지사(六知事) 가운데 하나인 유나는 기강과 사법(司法)을 담당한다.

유나를 ‘차제(次第)’ 또는 ‘열중(悅衆)’이라고도 한다. 차제란 순서를 뜻하고 열중이란 대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다. ‘유나’라는 직함에 얽매어 기강을 잡는데 치중하면 대중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경직된다면 대중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쁘게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열중(悅衆)이라고 한 것이다.

《선원정규》 유나 장에서는 유나의 직무에 대해 “범어로는 유나, 우리나라(중국)에서는 열중(悅衆)

# 감원의 핵심 소임은 상하간 화목

## 재정과 행정 등 총림 업무 총괄 기강 확립 위해 유나 권한 강화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유나의 의지를 반영하듯 범어사 금어선원의 장삼이 가지런히 정리돼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중책 수행 공동체 생활 속에서 대중을 먼저 생각

이라 한다. 유나는 대중의 일(행동거지)을 관장한다. 새로 입방 하려는 자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승당 내 모든 물품을 관장되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고사(庫司, 창고 담당, 부사)에게 알리고, 부서진 것은 직세(直歲, 건물 관리 보수 담당)에게 의뢰해 보완·충당토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원정규》에는 또 “병승(病僧)이 있으면 연수당(延壽堂, 열반당) 담당자(간병)에 알리지 조치하도록 하고, 당두(堂頭, 방장지사), 연수당두(열반당 책임자), 로두(爐頭, 화로 담당), 종로의 요주(寮主)와 각 전각 관리자(殿主) 등 소직(小職)에 대한 임명 제청도 모두 유나가 관장한다. 만일 승당 내에 분쟁 등 큰 일이 생기면 당두(주지)에게 알리고 작은 일은 유나가 규율에 의해 처리한다. 승당 내에 분실물이 발

생해 피해자가 수색할 것을 요청하면 대중에게 알리고 수색하되, 수색한 결과 분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한 당사자를 승당에서 추방하거나 전출시킨다. 가능한 화해를 시켜 소란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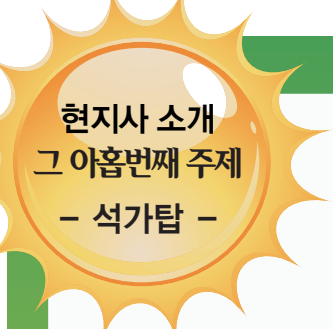
유나는 대중 가운데 규율을 어기거나 규율을 어기고도 참회하거나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추방할 수 있었다.

예컨대 주지가 공무(公務)로 바빠서 보청(울력)에 나오지 못할 경우 대신 방장실 시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장 시자를 추방, 문초, 전출시킬 수 있다. 실제로 방장실 시자까지 추방이나 전출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청구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거거하고 수행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강과 규율·

사법(司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총림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유나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나는 정규 내용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범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합과 화해를 더 중시해 문제가 생기면 양자를 중용해 화해하도록 했다. 법 적용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에 앞서 화합과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나의 능력일 것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changhwa9@hanmail.net



현지사 소개  
그 다음번에 주제  
- 석가탑 -

## 영산불교 현지사 ‘석가탑’ 건립 - 내년 사월 초파일 점안 영산정토 영산궁의 ‘석가탑’을 재현하다

삼계의 범왕이신 석가모니부처님과 탑을 솟아  
그 법을 증명하신 다보부처님  
두 부처님의 실존(實存)과 법(法)의  
진실을 증명코자 두 탑을 세우다

#### ◆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 정토, 그곳의 무량광빛의 탑을 이곳에 재현하다

현지사에서 세계 최초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정토에 있는 빛으로 된 석가탑을 규모만 줄여서 그대로 재현하고자 합니다. 이 탑은 높이 10m 내외의 8각형 정자 형태로 조성되고 다보탑과 더불어 정법도량 현지사를 상징하게 됩니다. 내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10만등 불사를 봉행하면서 점안식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 ◆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미증유한 탑

인도와 중국,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는 부처님을 기리는 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불국사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석가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의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에 있는 탑과는 그 모습을 달리하며 점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지사에서 조성하는 석가탑은 이와 달리 부처님 세계의 탑을 그대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붓다에 의해 점안됨으로서, 실제의 탑과 직접 연결(link)되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탑입니다.

#### ◆ 석가탑건립의 의미 - 부처님의 실존과 부처님 회상임을 상징

현지사에서 석가탑을 건립하는 것은 현지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방편으로 열반을 보일 뿐 진실로는 멸도하는 일이 없으며”, 지금도 현지사에서 두분의 제자와 함께 위없는 법문을 굴리고 계십니다. 현지사는 가섭과 아난, 당신의 두 제자를 보살피기 위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붓다 회상임을 석가탑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 불법 -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法) - 연기의 이법, 사성제 팔정도, 업과 윤회 및 해탈·니르바나(Nirvana)의 세계, 청명염불 수행법 - 을 상징합니다. 이 진실한 법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넘어 온 우주 법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특히 팔각의 석가탑은 사각의 다보탑과 함께 각각 팔정도 사성제를 상징하는 법의 상징물입니다.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다보여래께서 출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현지사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나란히 조성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 ◆ 국가적 보물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인 현지사 석가탑

이제 현지사의 진정한 정법 불교가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 이 보물들의 가치를 세상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신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모셔진 석가탑과 다보탑은 현지사의 보물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 자재만현 콘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18일 오전 10시, 19일 오후 10시 특별 편성 방송 (QOOK 550, BTV 521, U+108번)

### - 현지사 출간 서적 목록 -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16쇄 | 371면 | 25,000원) 한국어판·영어판·일본어판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385면 | 25,000원) 한국어판·영어판·일본어판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 관음태고 (187면 | 10,000원)
- 관음태고에서 천도까지 (311면 | 15,000원)
- 붓다의 메시지 존경 (506면 | 15,000원)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 척천후후 (238면 | 15,000원)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 법문집 (1~10권) 재발간 예정
- 신불교사상 (193면)
- 신불교학개론 (65면)
- 반야심경강의 (134면)
- 영산불교 사상에 대한 기자와의 인터뷰 (47면 | 소책자)
-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책자)
- 부처님이 주권하시는 천도대재 (32면 | 소책자)
- 행복으로 가는 길 (22면 | 소책자 | 만화본, 사진본)
- 지역 팀장을 위한 수지교본 (47면)
- 자재만현 콘스님과 대화 (145면)
- 법령집 (74면)
- 21세기 그랜드 비전 (65면)
- 108 대참회문
- 영산 1, 2